

도심 법당 찾는 불자는

직장인 김미정(33)씨의 하루는 서울 봉은사에서 시작된다. 김씨는 새벽 4시 30분 봉은사에 도착해 새벽예불과 법왕루에서 108배를 마친 후 출근한다. 벌써 2개월째다. 김씨는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예불에 참석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자영업자를 하고 있는 이상만(45)씨는 가게 문을 닫은 후 서울 조계사 대웅전을 찾는다. 이씨는 "보통 밤 11시쯤 일을 마치는데 이곳은 늘 인원이 열려 있으니 자주 찾게 된다"고 말한다.

부산 미타선원 새벽정진회 회원인 김경숙(41)씨는 지난 7월부터 딸 차지원(6)양과 함께 새벽예불에 참석하고 있다. 4년간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며 몸과 마음이 지친 김씨는 새벽예불을 드리면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됐다고 한다.

"머칠 따라나서다 말짱지" 했던 지원은 이제 엄마보다 먼저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선다. 자신의 변화로 딸이 아버지의 법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도 새벽예불의 큰 성과다.

불자들의 신행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도심 사찰의 경우 새벽예불이나 주말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수시로 사찰을 찾는 직장인과 외국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는 연일 동국대나, 사찰 교부금 불발지 원이니 하는 기사들로 가득하지만, 불자들에게 불교는 '생활 속의 가르침'으로 더욱 굳게 다가서고 있는 듯하다. 봉은사에서 만난 한 불자는 "언론 보도 때문에 절에 오기 싫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럴 때일수록 불자들이 더욱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지요. 부처님 가르침으로 살기 위한 첫 번째 일이 새벽예불 참석 아닙니까?"

9월 22일은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가 대웅전을 24시간 개방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조계사는 대웅전을 개방한 후 포교취약계층인 직장인 불자 출입이 늘

었다. 바쁜 업무 때문에 사찰을 찾기 어려웠던 직장인들이 새벽이나 야간에도 사찰을 찾아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방문객 수도 증가했다. 서울 시내에서 야간에도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은 조계사가 거의 유일하다.

대웅전 개방을 맞아 100일 기도도 진행됐다. 지난 100일 동안 석가모니불 정근을 했던 불자들은

하고 있다. 명진 스님은 취임 후 사찰 밖 출입을 금하고 '100일 기도'에 입재했고, 예불 때 마다 주지 스님을 비롯한 소임 스님들이 전원 참석하는 것은 물론 예불 후 마당을 쓰는 율령에도 동참하는 모습이 신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봉은사 신도 김무용(66)씨는 "스님들이 솔선수범해 예불을 올리고 법회에 참석하니, 신도들의 신심이 높아지는 것은

불은 수행자나 재가자들 모두 빠지지 않고 해야 할 기조 수행인 것이지요."

불자사 신도인 박춘성(49)씨는 "평소에 몸이 안 좋아 새벽에도 구급차에 실려가곤 했는데, 새벽예불에 꾸준히 참석하고부터는 더욱 건강해졌다"며 "새벽예불을 마치고 나면 환희심이 솟구친다"고 즐거워했다.

부산 미타선원(주지 하림)도 예불에 참석하는 인원이 부쩍 늘었다. 4개월 전 새벽예불을 중심으로 신행생활을 주도하는 불자들이 모여 '새벽정진회' (회장 김선주)를 창립했기 때문이다. 새벽정진회는 새벽예불 참석을 시작으로 도반들에게 법회 참석을 권유하고 서로의 신행생활을 돕기 위한 모임이다.

김선주 회장(49)은 "새벽예불을 매일 드리면서 마음과 가정의 평안을 찾는 회원들이 많다"고 말한다. "예불에 참석하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그 변화를 가족들도 느껴 함께 예불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은 "신행생활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독려하는 도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새벽정진회 구성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한다. 하림 스님은 "현대인들은 불규칙적인 생활과 '빨리 빨리' 하는 조급한 생각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잃고 있다"며 "새벽예불에 참석하게 되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TV를 보는 대신 생활을 계획적으로 하게 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조언한다.

남동우·여수경·하성미 기자

새벽예불·주말법회 등 참석자 증가 법당 개방·정진 모임 결성 등 '효과'



'불교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오히려 사찰을 찾는 불자의 수는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9월 20일 서울 봉은사 새벽예불에 참석한 불자들. 사진=박재원 기자

23일부터 약사여래불 정근을 시작했다. 오는 12월 31일 다시 회향하게 되면 아미타불 정근을 시작하게 된다. 조계사 대웅전 삼존불인 석가모니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한 신행활동이다. 기도 동참비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적립된다.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하더라도 회향은 이웃과 함께 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행활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최근 법회 참석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새벽예불에도 200여 명에 가까운 불자들이 동참하고, 일요법회에는 400~500여 명이 꾸준히 참석

당연하다"고 말한다. 통도사 부산 포교원 불지사(주지 상진) 역시 주지 스님의 노력으로 새벽예불 동참자가 20여 명 가까이 늘어난 경우. 직접 예불을 집전하고 있는 상진 스님은 "새벽예불은 수행의 기조"라고 말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부처님께 문안 인사드리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새벽예불입니다. 새벽예불에 빠지지 않는 마음가짐은 우리 생활에 계(戒)가 되어 절제하는 생활을 하게 도와줍니다. 계를 지키며 살 때 맑아져서 고요한 마음, 정(定)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인해 비로소 혜(慧)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벽예

추석연휴 신문 배송 안내

본지 647호는 9월 21일 제작하여 22일 정상적으로 발송합니다. 그러나 우체국의 추석 연휴 업무 정체 관계로 독자여러분께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배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휴 관계로 648호는 10월 6일 발송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추락? "우린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중립대학 동국대가 연일 매스컴에 이름을 올리며 '위기의 계절'을 맞고 있다. 학교의 이미지 추락으로 위기소침해질 법도 하지만, 중간고사를 앞둔 학생들은 진흙 속의 연꽃처럼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있다. 9월 20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를 거니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글/사진=박재원 기자

실천불교승가회 자료집 발간

지난 2006년 5월 한국 사찰의 위기에 대한 총론적 진단을 시작으로 총 4차례 세미나와 두 차례의 선진 사찰 견학을 진행한 바 있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효립·성관)가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책으로 발간했다.

자료집은 총 211페이지 분량으로 세미나 기초발제문과 세미나 토론 내용, 그리고 사찰 견학 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차 세미나 당시 발표된 사찰경영요소 분석과 2차 세미나에서 발표된 사찰 재정 분석과 확충 방안 그리고 각종 문제점 분석, 교계 처음으로 제시된 종단 및 사찰과 관련된 각종 제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02)725-4277 김주필 기자

社告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기쁨에 차곡차곡 담아 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십시오.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7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 2008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부대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82
- 이메일 접수 : jygang@buddhapia.com
- 시상 부문 -대상(유마상) -우수상(본사 사장상) -특별상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업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전 화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010-7504-4521 (김영화 변호사)
 017-535-068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진 변호사)

100년의 역사, 새로운 100년의 꿈

조계사 창건 97주년 기념 주간 안내 창건일 10월 13일(음력 9월 3일) 토요일

유아 수기 법회

10월 6일(토) 오전 10시 30분 조계사 대웅전
 불교의 희망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주는 수기법회를 봉행합니다. (대상 : 태종아기~7세이하 유아)

이주노동자 수계법회 및 문화행사

10월 7일(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대웅전 및 주변
 1부 수계법회 / 2부 화합마당 / 3부 체험마당 / 4부 공연마당

불교대학 3000배 철야용맹정진

10월 13일(토) 저녁 7시 ~ 다음날 새벽 4시

조계사 창건97주년기념 대중강연회

10월 8일 근대한국불교와 조계사 (이미화 / 역사학자)
 10월 9일 현대한국불교의 얼굴 (조정래 / 소설가)
 10월 10일 미래한국불교를 위해 조계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김명곤 / 前문화관광부장관)

역대 주지스님 초청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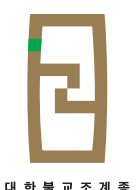
10월 8일~10일(3일간) 오전 11시, 대웅전
 역대 주지스님을 초청하여 조계사 창건의 의의와 현재성을 되돌아봅니다.

궁중신다례제

10월 11일(목) 12시 20분 ~ 오후 2시
 명원문화재단 주관으로 왕이 스님들을 초청해 차를 대접하던 행사인 궁중다례의식을 조계사에서 봉행합니다.

제5회 회화나무음악회

10월 12일(금) 저녁 6시 ~ 8시, 조계사 특설무대
 출연 : 합합뮤지션 MC Sniper, 재즈보컬 웅산, 강혜윤 김형렬, 조계사 무용단, 조계사 대학생회 조계사 합창단 등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서울 | 마한 | 미려